

## BC카드,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교육 실시

### 3차례에 걸친 'BC CP Academy' 과정 실시



BC카드(대표이사 사장 장형덕)는 전체 임원과 관련업무 부서 부사장, 팀장, 지점장 등 총 62명을 대상으로 5월 28일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와 연계해 'BC CP(Compliance Program) Academy' 과정을 실시한다.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강사진이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공정거래에 대한 전문지식 등 역량 강화와 임원교육 확대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되었다.

지난 5월 28일 서울대학교 권오승 경쟁법센터장과 고려대학교 이황 교수 등이 강사로 참여한 교육 첫날에는 공정거래법과 경쟁정책의 주요내용, 공정거래법과 금융산업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전반적인 교육과정은 공정거래와 금융 관련 법규, 사례 소개 등을 통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위주로 진행됐다. 금융업계에서 임직원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 교육을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와 공동으로 연계 실시하는 것은 BC카드가 처음이다.

BC카드 오경섭 준법감시인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운영에 있어서 CEO 및 임원의 자율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서 "이번 교육이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대한 내부 임직원들의 이해와 풍토를 확산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롯데의 GS리테일 대형할인마트 사업부문 인수 승인

### 공정위, 롯데의 대형마트사업 규모 증가로 이마트 홈플러스와 경쟁 촉진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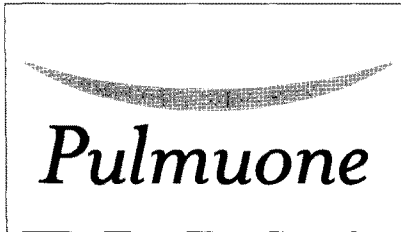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의 (주)GS리테일 대형할인마트 사업부문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형할인마트 업계 3위인 롯데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쇼핑(주)은 GS리테일의 대형할인마트 부문을 영업양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2008년 홈플러스의 홈에버 인수 건 등 과거 대형할인마트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형할인마트 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확정하고 실질적 경쟁제한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롯데마트가 대형할인마트 시장의 전국 3위 사업자로서 점포수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이마트, 홈플러스 등 1, 2위 사업자들과의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풀무원식품, CP 도입 2주년 선포

창사 26주년 기념식 통해·자율적 공정거래문화 선도 위한 적극적 행보 나서



(주)풀무원식품(대표이사 사장 이효율)은 5월 12일 창사 26주년 기념식을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2주년을 기념하는 선포식을 가졌다.

풀무원식품은 그 동안 바른마음 경영현장의 “우리는 비즈니스파트너와 동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거래한다”는 다짐 내용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하며 바른마음(TISO)경영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운영해왔다.

CP 도입 2년 만에 CP 등급평가에서 A등급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 풀무원식품은, 내부 직원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의지를 다져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조기에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매년 1월과 7월 첫째 주 월요일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실천의 날’로 제정했다.

그리고 임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법이 지향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활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매년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실천서약을 작성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정거래 경영원칙들은 조직원들이 현장에서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CP편람을 e-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이효율 사장은 “풀무원식품은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이 지향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세계 유수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은 물론, 우리 스스로 경쟁규범을 지키는 문화와 풍토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풀무원식품은 임직원들의 CP 인식과 관심 고취를 위해 6월 셋째 주를 ‘CP Week’로 정하고, 자율준수관리자의 CP Letter로 시작해 요일별로 CP 홍보물 전달, CP 트위터 가입, CP 퀴즈, CP 4행시 짓기 등의 사내이벤트도 진행했다.

## □ 현대자동차그룹, 2700여개 협력사와 제2기 공정거래협약 체결

“2·3 차 협력사 지원 확대로 자동차산업 경쟁력 높인다”



현대자동차그룹은 6월 8일 경기도 화성시 롤링힐스에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신달석 자동차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서영종 기아차 사장, 정석수 현대모비스 부회장 등 8개 계열사 대표이사 와 주요 협력회사 대표이사 등 약 2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차그룹은 2008년도에 이어 올해 제2기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협력회사들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사업자는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8개 계열사와 협력사 2,691개사 등 총 2,700개 사에 이르며, 특히 현대·기아차는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차 협력사까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2차 협력사 지원 및 육성에 대한 의지를 공고히 했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협약을 통해 1차 협력사에 비해 경영기반이 취약한 2,3차 협력사들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초산업에 속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의지 및 공정거래 원칙 천명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 운영 △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회사 자금 및 기술 등 종합 대책 지원 △ 2·3차 협력사에 대한 상생협력 강화 등이다.

현대차그룹은 2008년 제1기 공정거래협약식 체결 이후 '하도급 3대 가이드라인'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입각하여 협력회사 선정, 운용 및 계약체결을 준수해 왔으며, 우월적 지위를 통해 거래상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협력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혁신 자립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도 적극 나서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재무건전화, 품질 및 기술개발 촉진, 교육훈련 및 경영활동 지원 등 다각적인 육성책을 마련했다.

우선 재무 건전화를 위해 580억 원 규모의 직접 자금 출연에 24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총 820억 규모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고 기존에 운영해 오던 납품대금 100% 현금결제, 1,00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신용대출, 2,640억 원 규모의 상생보증프로그램, 기타 네트워크론, 녹색상생금형대출, 녹색브리자론 등을 지속 운영키로 했다. 특히, 2·3차 협력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3차 상생대출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여 주주·금형·용접 등 기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출 이행보증용으로 10억 원을 출연키로 했다. 이밖에도 현대차그

룹은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2·3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기술력이나 품질관리 측면에서 취약한 뿌리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대기아차 기술연구소, 구매본부, 품질본부와 1차 협력사가 합동으로 TFT를 구성하여 품질, 기술지원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부품산업진흥재단과 게스트엔지니어링 제도, 선진기술벤처마킹, 특허공동출원 등을 강화함으로써 기초산업의 품질 및 기술력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교육훈련지원을 위해 운영해온 직업훈련컨소시엄, 어학집중과정 외에 신규로 협력사 현장애로기술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용접학교, 사출학교, 도금학교 등의 기술학교를 협력사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자동차입문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며, 전문기술인력을 협력사에 파견하여 품질 및 기술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은 “지난해 세계 금융위기에서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현대차그룹이 추진해 온 품질경영과 글로벌 경영을 뒷받침해 준 협력사들의 혁신과 노력 때문이었다”면서 “협약을 통해 협력회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대림산업, 협력사에 85억원 직접 지원

###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에 이부의 상무 선임

#### 대림산업

대림산업은 6월 9일 협력사에게 85억 원을 직접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사 자금 지원은 지난 3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맺은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대림산업이 자금을 지원하는 협력사는 삼지석재공업(주), 성남기업(주), (주)인플랜, (주)대원씨엠씨, (주)고은조경, 청우산업(주), (주)이건사, (주)코인상사, 대영이엠씨(주) 등 모두 9개사다. 이들 협력사에게는 최대 20억 원에서 최소 5억 원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체결한 상생협력활동 1년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에 대한 직권조사를 1~2년간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대림산업은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를 이부의 상무로 변경 선임했다고 6월 15일 공시했다.

이부의 상무는 대림산업 유회사업무 기획·인사담당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설계 및 집행을 총괄하는 최고책임자인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에 선임됐다.

## □ 5개 대형백화점, 납품업체에 총 5441억원 지원 등 상생협력 약속

### 현금결제 확대, 협력사 우수사원 해외연수도·2500여개 납품업체 혜택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AK플라자 등 5개 백화점 대표와 협력사 대표 등은 6월 17일 서울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 합동 선포식을 가졌다.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선포식에서 체결된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한 유통거래의 보장을 위해 △ 공정거래법규 준수 의지 및 공정거래 원칙 천명 △ 공동 판촉, 할인행사, 상품반품에 관해 사전에 충분한 합의를 통한 서면계약 체결 및 교부, 마진율의 공정한 결정절차 도입, 마진율 결정에 대한 상호협약 및 계약기간 준수 등의 공정한 유통거래를 위한 실천사항을 마련했다.

그리고 상생협력을 위해 총 5,441억 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 협력회사 상생기금 조성을 통한 자금 지원 150억 원(롯데백화점) △ 산지축산 직거래업체 생산 장려금 등 직접 지원 1억2,000만 원(갤러리아) △ 금융기관과 연계한 협력사 대출 지원(네트워클론 등)에 롯데백화점 2,000억 원, 현대백화점 1,200억 원, 신세계백화점 230억 원, 갤러리아 1,800억 원, AK플라자 60억 원 등 총 5,290억 원이 지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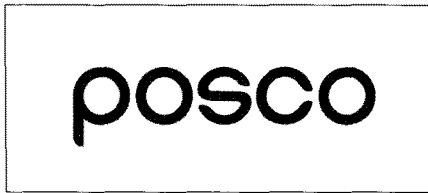
또한, 납품대금 지급조건 개선을 위해 △ 현금결제 비율을 99.7%에서 100%로 상향, 월 1회의 대금 지급, 직매입 대금지급 기일을 20일로 단축, 매출연동 마진율조정제 시행(롯데백화점) △ 현금결제 비율 100%, 대금 지급 월 2회(현대백화점) △ 현금결제 비율 100%, 대금지급 월 1회, 직매입 대금지급 기일 15일로 단축(신세계백화점) △ 현금결제 비율 100%, 대금 지급 월 1회(갤러리아) △ 현금결제 비율 97%, 대금 지급 월 1회(AK플라자) 등이다.

이와 함께 기술 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에 있어서는 △ 신진디자이너 발굴·육성, 공동 브랜드 개발 및 지원 △ 협력업체 판촉사원 교육훈련 지원(연 1만 명 규모) △ 협력회사 육성모델링 프로그램 운영 △ 국내 5개 전문대학과 연계해 협력사원을 위한 자기개발 기회 등을 제공하게 된다.

기타 상생협력 지원프로그램으로는 △ 상생협력 업무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지원전담부서 운용 △ 신진 디자이너 판로 지원 △ 불공정거래행위 예방교육 및 감시시스템 운영 △ PB 상품, ONLY 상품 등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 ☐ 포스코 5개 계열사,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A등급'

포스코건설 · 포스코ICT · 포스코켄텍 · 포스코플랜텍 · 포스메이트 A등급 획득



포스코 출자사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활동이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월 23일 발표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 포스코ICT · 포스코켄텍 · 포스코플랜텍 · 포스메이트 등 5개 사가 90점 이상

을 받아 우수등급인 'A'를 획득했다. 또한, 포스코강판 · 포스코A&C · 삼정P&A 등 3개사가 85~90점으로 양호 등급인 'B'를 받아, 전반적으로 포스코 출자사들의 상생협력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공정위가 대·중소기업간 본 협약을 체결하게 하고 1년 뒤 이행실적을 평가해 우수기업에 대해 표창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포스코 건설 등 9개 출자사는 2008년 12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최우수 등급인 'A' 등급(95점 이상)을 받은 기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및 서면실태조사를 2년간 면제받으며, 공정위원장급 이상의 표창이 수여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현재까지 A등급을 획득한 기업은 포스코와 현대·기아자동차 2개사가 유일하다. 우수등급인 A등급과 양호등급인 B등급도 직권조사 및 서면실태조사가 1년간 면제되고, 공정거래위원장 상훈이 수여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포스코는 2009년에 최우수등급인 A를 받아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 ☐ SK, SK네트웍스 보유 SK해운 지분 전량 취득

지주사 요건을 갖추기 위한 수순

SK(주)는 6월 30일 SK네트웍스가 보유한 SK해운의 주식 전량인 1,089만 7,999주를 454억 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지주사의 사업자회사간 지분 소유 금지 조항에 따라 지주사 요건을 갖추기 위해 SK해운 주식을 매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식 취득 후 SK(주)의 SK해운 지분율은 종전 72.1%에서 89.8%로 확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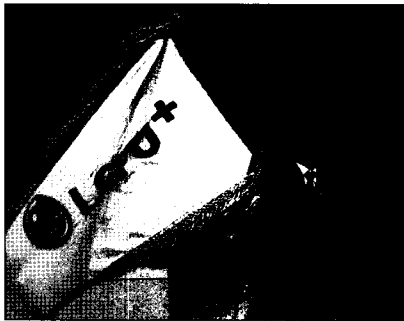
2007년 7월1일 지주사로 전환했던 SK그룹은, 현행법에 따라 지주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SK증권도 매각해야하지만,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SK증권 매각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회원사 소식

## LG유플러스, '탈통신 세계 일등 기업' 도약 선언

사명을 LG U+로 변경·'탈통신 세계 일등 기업'으로의 본격 출항



통합LG텔레콤이 사명을 'LG U+(LG유플러스)'로 바꾸고 '탈(脫)통신 세계 일등 기업'으로의 출항을 공식 선언했다.

LG U+(대표 부회장 이상철)는 기존의 통신사업자 관점의 '텔레콤'이란 사명을 과감히 떼어내고 새로운 고객가치를 담은 LG U+의 이름으로 혁신적인 U컨버전스 서비스를 통해 '탈통신 세계 일등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7월 1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LG U+ 비전선포식 행사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회에서 LG U+ 이상철

부회장은 "LG U+로의 새로운 출발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는 '탈통신'으로의 출항 선언"이라며, "LG U+는 U컨버전스 서비스를 통해 잃어버린 IT 강국을 되찾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상철 부회장은 "마치 펭귄이 새로운 세상을 찾아 날아가듯이, 집에만 한 범고래가 인간이 만든 제방을 넘어 망망대해로 가듯이 지금의 감히진 틀을 벗어나 세계의 블루오션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철 부회장은 "이제 LG U+는 온 국민은yo 요금제로 디지털 해방을, '세계 최고의 인프라로 유무선 구분 없이 최고의 속도를', 'U컨버전스로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세계 최고의 IT 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국민이 되도록 하고 탈통신 세계 일등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 U+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기자회견회가 끝난 후 LG U+ 공식 출범과 함께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비전선포식은 고객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비전 선포식은 최장기 가입고객 등 LG U+의 기네스 고객이 초청되고 고객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는 회사를 상징화한 B-Boy 퍼포먼스로 시작했다. 또한, 통합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새로운 사명과 CI를 디지털 영상으로 새기는 등 LG U+의 출범을 알렸다. 이어 LG U+의 비전을 실현하고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이 되는 ACN과 LTE, Cross Platform, Cloud 등의 인프라를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소개하고, 새로운 고객가치 중심의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탈통신 세계 일등 기업'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한편, LG U+는 비전선포식을 마치고 서울 남대문로 본사 1층에서 차세대 이동통신 'LTE(Long-Term Evolution)'의 시연회를 가졌다. 이날 선보인 LTE는 휴대폰을 통한 데이터 전송속도가 초고속 광랜 수준인 100Mbps 급으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가 기존 3세대보다 10배 이상 빨라 멀티스크린, 동영상 및 VOD 등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이다.

## □ KT, 제6차 IT CEO 포럼 개최

### KT와 3개 계열사, 520여개 중소 협력사와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에 관한 협약 체결



KT(회장 이석재)는 7월 8일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포럼 회원, 벤처단체장 및 IT업계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하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의 만남'을 주제로 제6차 IT CEO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석재 KT 회장을 비롯하여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윤용로 기업은행장, 김일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포럼에서 강연을 맡은 정호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010년 공정거래정책 추진방향 및 법 집행 사례'를 주제로 강연하고, 시장경제 파수꾼으로서의 공정위 역할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2010년 공정거래정책 추진방향으로 △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 △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쟁질서 확립 △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보호 △ 책임 있는 소비자 활동의 진작을 제시하고 다양한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이날 KT는 KTDS, KT링크스, KT커머스 등 3개 계열사와 522개 협력사와 함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선포식'을 열고, 상생경영을 그룹 단위로 확대,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준수지침 및 공정거래 원칙 천명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도입 및 운용 △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회사 자금 및 기술 등 종합지원 대책 등이다.

KT는 삼성물산, LG전자와 함께 2007년 10월 국내 최초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였고, 2008년도 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협약에 참여한 주식회사 다산네트웍스의 남민우 사장은 협력사를 대표해 "이번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우선은 520여 협력사가 KT그룹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통한 창조적 공존의 길로 들어섰으며, 이는 다시 전국의 수많은 중소 협력사로 확대 재생산될 것" 이라면서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보통신업계가 글로벌 ICT 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데 일조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KT 이석재 회장은 "KT가 오픈 에코시스템(Open Ecosystem)을 통해 상생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협력사의 혁신과 노력 때문"이라고 말하고 "협약 선포식을 계기로 중소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정책들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T CEO 포럼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KT와 주요 벤처기업협회가 주도하여 2009년 9월 창립한 포럼이며, 현재 IT 업계의 CEO 420여 명을 비롯한 1,4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IT 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포럼이다.